현장에서

민간이 주도한 반출문화재 환수 성과 있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문화재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일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사무처장 혜문스님은 문화재 반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한·일 양국정부가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 1205점에 대해 '반환합의'하였다고 발표한 이후,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지만 혜문스님은 "민간의 노력으로 이뤄낸 쾌거"라고 강조했다.

조선왕실의궤 환수는 지난 2006년부터 불교계 주도로 이뤄진 환수운동의 성과물이다. 특히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 문화재 환수운동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선왕실의궤환수위는 그동안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내외의 여론을 주도해 왔다.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과 의궤반환촉구 남북 공동 합의를 추진하는 한편, 일본 의원 및 시민단체와 환수를 위해 공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성과를 얻었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를 제외하고 환수 운동에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시점에 다른 민간단체나 정부에서 치밀한 준비를 했다면 다른 문화재의 환수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혜문스님의 말이 더욱 와 닿는 이유다. 문화재는 민족의 얼이 담긴 유산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문화재 환수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논산훈련소 법당·유네스코 기금 이어 또 '익명'

수좌회 복지기금 3천만원 보시

익명(匿名)의 기부자가 또 다시 무주상 보시를 실천했다. 지난 5일 이름을 밝히지 않고 논산 육군훈련소 군법당 건립기금(2억 원)과 유네스코 기금(5000만 원)을 기탁한 기부자가 이번에는 수좌 스님들의 복지기금 3000만 원을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총무원장)에 지정 기탁했다. 이 기부자는 신분을 밝히지 말 것을 아름다운동행에 신신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은 10일 익명의 기부자가 기탁한 수좌 복지기금 3000만 원을 전국선원수좌회 복지위원장 의정스님에게 전달했다. 때마침 〈선원청규〉 봉정법회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을 찾은 수좌회 스님 10여명도 자리를 같이 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뜻에 따라 (언론에) 알리지 않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신문기사를 보고 아름다운 동행에 기금을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매년 (수좌스님들의) 치료비를 3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기부가 많아지면 좀 더 치료비에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좌회 스님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수좌회 복지위원장 의정스님은 "안거철마다 선방에서 정진하는 수좌 2000여명 가운데는 병들고 나이가 들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면서 "(오늘 전달받은 기금을) 그분들이 몸이 아플 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익명의 기부자가 무주상 보시한 기금 3000만원을 전국선원수좌회 스님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스님들 노후복지 형식에 그치지 않을 것" 총무원장 스님 '매년 3천만원 지원' 화답

이날 총무원장 스님과 수좌회 스님들은 승려노후복지의 필요성에 공감을 같이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1월 정기중앙종회에 65세 이상 스님들을 지원하는 승가복지법안을 제출해 놓았다"면서 승려노후복지의 제도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국선원수좌회는 별도의 소임을 맡지 않고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을 위해 복지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복지위원회 설립이후 병마와 싸운 4명의 스님을 도와주었다. 이 가운데는 실명(失明)한 스님도 있다. 2000여명에 이르는 수좌들의 복지기금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다. 총무원장 스님을 통해 전달받은 익명의 기부는 수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좌회 복지위원회 활동에 대한 설명은 들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단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다"면서 "스님들의 노후복지 종책은 형식적인데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을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의정스님은 "승려노후복지는 틀림없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총무원장 스님이 좋은 마음을 내서 도와주시니 잘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인수인계 철저·어린이포교 활성화"

총무원장 자승스님, 직할교구 주지 임명시 당부

총무원장 스님이 직할교구 사찰 주지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2일 서울 천축사 주지 법우스님과 성남 봉국사 주지 덕현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린이포교와 (사찰)예산 증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천축사는 지형이 높은데 있어 포교 여건이 어렵지만 (도심에)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어린이 포교에 신경을 써 달라"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봉국사는 도량도 넓고 포교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곳"이라면서 "특히 신도 교무금 납부를 중시하고, 예산 증대에 신경을 써 달라. 그리고 어린이 포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축사 주지 법우스님과 봉국사 주지 덕현스님은 "총무원장 스님 말씀을 명심하고, 소임을 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법우스님 천축사

덕현스님 봉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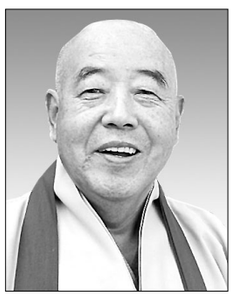
천축사 주지 법우스님은 11월19일부터, 봉국사 주지 덕현스님은 12월8일부터 4년간 주지 소임을 보게 된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 혜성스님 '10·27법난 손배소 승소' 주요내용

1980년 신군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불교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10·27법난과 관련 당시 도선사 주지 혜성스님(현 도선사 회주)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의 판결 후 9일 발부된 판결문에 따르면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은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2007년 10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10·27법난 조사결과보고서 발표 시점을 공소시효 기간으로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를 중심으로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았다.

2007 국방부 보고서 발표시점 공소시효 기간 적용은 '부적절'



도선사 회주 혜성스님.

10·27 법난은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반란의 주모자가 주축이 된 신군부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자행한 사건이다.

10·27법난처럼 국가권력이 대규모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특정 종교에 대한 반인륜적인 탄압을 한 사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유효한 증거자료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모두 입증하라는 것은 매우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국가가 보유한 증거들을 개시하여 이를 조사할 수밖에 없다.

반인도주의 범죄행위 시효소멸 주장 '문제'

그래서 강영훈 전 국무총리의 사과성명이 발표되자, 불교계에서는 피고의 사과에 앞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강영훈 전 국무총리의 사과성명이 있은 후에도 5공특위에서 10·27법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이나 명예회복을 위한 특이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0·27법난은 국가권력 차원에서 경찰력 등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불법구금과 고문 등을 자행한 반인도주의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피고 국가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시효소멸을 주장한다는 것은 국가의 존립근거와 의의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혜성스님)가 불법 구금되어 각종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허위의 진술서 작성을 강요당했고, 허위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되어 승려로서는 물론이고 한 인간으로서도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

구금되어 풀려난 후에는 승려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승적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고문으로 인해 상당한 상해를 입고 후유장애까지 남게 된 점, 그동안 피고가 진상규명을 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적 간격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취한 조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3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정리=이성수 기자

三華寺 淸墨 美術院 文化講座 案內

본 삼화사 청묵미술원에서 전통문화의 인재발굴과 함께 지역 정서문화 보급에 기여코져 아래와 같이 서예, 사군자, 전각 및 古典講讀을 위한 회원을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 목	강 사	시 간	비 고
서 예	圓學스님 (본미술원장)	매일 오전 10시~오후 8시	楷, 行 ,草, 隸, 篆書를 古碑帖에 의하여 지도함.
四君子	圓學스님 (본미술원장)	매일 오전 10시~오후 8시	梅, 蘭, 菊, 竹外 전통 山水畵 지도
文房四友	閑步金宗九先生 (화가·전각전공)	격주 금요일 저녁 7시~9시	종이, 붓, 먹, 벼루의 종류와 역사를 고전에 의하여 공부함.
篆刻實技	閑步金宗九先生 (화가·전각전공)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印篆에 의하여 刻法을 체계적으로 지도함.
東茶頌	圓學스님 (본미술원장)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12시	초의선사 동다송을 고전강독으로 공부함.
특 강	頂宇스님(통도사주지), 宗光스님(기림사주지), 여연스님(강진백련사주지), 김양식(시인·한인문화연구회장)		

※ 특강은 매월 1회 초청함. 수강료는 무료이며
회원 상조회비 매월 오만원. 3개월분 완납하여야 함.

개강일시 _ 2010년 11월 28일(일요일) 오전 10시30분
문의전화 및 원서교부 _ (053)853-9777, 853-5587
주소 _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1리 249

대한불교조계종 삼화사 청묵미술원